

# 인천 119 스토리

4  
2022

## 현장 소방

'영웅사진관'  
영웅들의 자긍심을 찍다

## 안전 소방

봄철 산악사고 안전수칙



# 목차

## 함께 소방



## 현장 소방



## 안전 소방



## 칭찬 소방



## 행사 소방



# 인천소방 소식



소방본부

2022년 봄철 산악구조 안전대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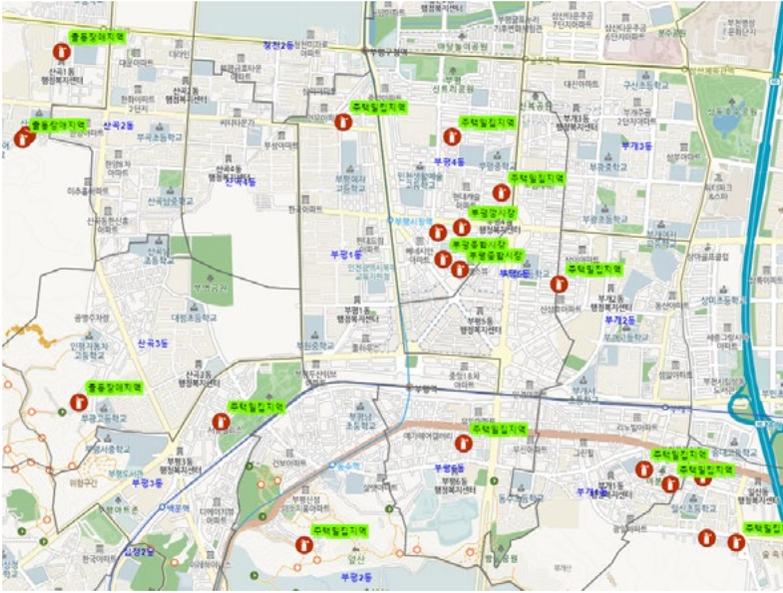
**추진기간** 2022년 4월 ~ 5월 (2개월)

- 추진내용**
- 주요 등산로 주말 및 공휴일 산악안전지킴이 운영
  - 등산로 산악 안전시설물 정비 보강
  - 주요 등산로 산악안전지도 제작하여 산악구급함에 부착
  - 유관기관·단체 합동훈련 및 첨단장비 활용 구조역량 강화
  - 안전한 산행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교육, 홍보

**문의사항** 소방본부 119재난대책과 032-870-3106

## 부평소방서

## 화재초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생활편리지도 서비스 제공



우리동네소화기함 현황

- 기 간** 2022년 3월 ~ 연중
- 대 상** 부평구민
- 제공정보** 우리동네 소화기함, 비상소화장치함 사진 및 위치 등 세부정보
- 활용방법** 부평구청 생활편리 지도 모바일(QR코드) 및 PC 활용 정보검색
- 기대효과** 화재 시 소화기 등 정보제공으로 시민 초기대응능력 향상
- 문의사항** 부평소방서 예방안전과 032-723-5352

서부소방서

비대면 심리상담

「따뜻한 서부인 마음톡톡 너의 마음을 들려줘!」



**기 간** 2022년 4월 ~ 연중

**대 상** 서부소방서 직원

**상담기관** 서구 정신건강 복지센터, 서부소방서

**방 법** 온라인 상담채널 활용 비대면 상담 (09시~18시)

**주요내용** 심리적 어려움 1:1 익명 상담, 정신건강 자가검사, 심리검사 등

**문의사항** 서부소방서 소방행정과 032-723-5482

공단소방서

## 구급대원 사기진작 및 근무환경 개선 추진



**추진배경** 코로나19로 인한 이송병원 선정 어려움 및 현장 대기시간 증가로 피로도 누적

**추진기간** 2022년 4월부터

**추진대상** 공단소방서 구급대원

**추진내용**

- 구급대원 「안식일」 시행, 「구급지원대(AST)」 운영  
\* AST(Ambulance Support Team) : 순찰차 이용 현장 교대 및 산소용기 교체 지원
- 「BEST 구급대원」 선발, 급식비 지원, 노후 대기실 보수 등

**문의사항** 공단소방서 119재난대응과 032-723-5565

미추홀소방서

## 대학생 전문의소대 활용 노후 비상소화장치함 디자인 개선



기 간 2022년 4월 중

대 상 노후 비상소화장치함 5개소

개선내용 외부 도장작업 후 시트지, 그림문자 제작하여 부착

문의사항 미추홀소방서 119재난대응과 032-870-3253

영종소방서

주거 취약대상 「Fire-Safety House」 추진



주택용소방시설  
(야광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타이머록 가스차단기



소방포



화재대피용 마스크

**추진기간** 2022년 4월 ~ 5월

**추진대상** 차상위계층 내 취약아동(주택용 소방시설 미설치 대상)

**추진방법** 화재안전시설 4종세트 100세대 방문 무상보급  
\* 화재안전시설 4종세트 : 감지기·야광소화기, 가스차단기, 소방포, 화재대피용 마스크

**문의사항** 영종소방서 예방안전과 032-727-6133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도  
필수입니다.



# 그렇게 세렝게티와의 인연은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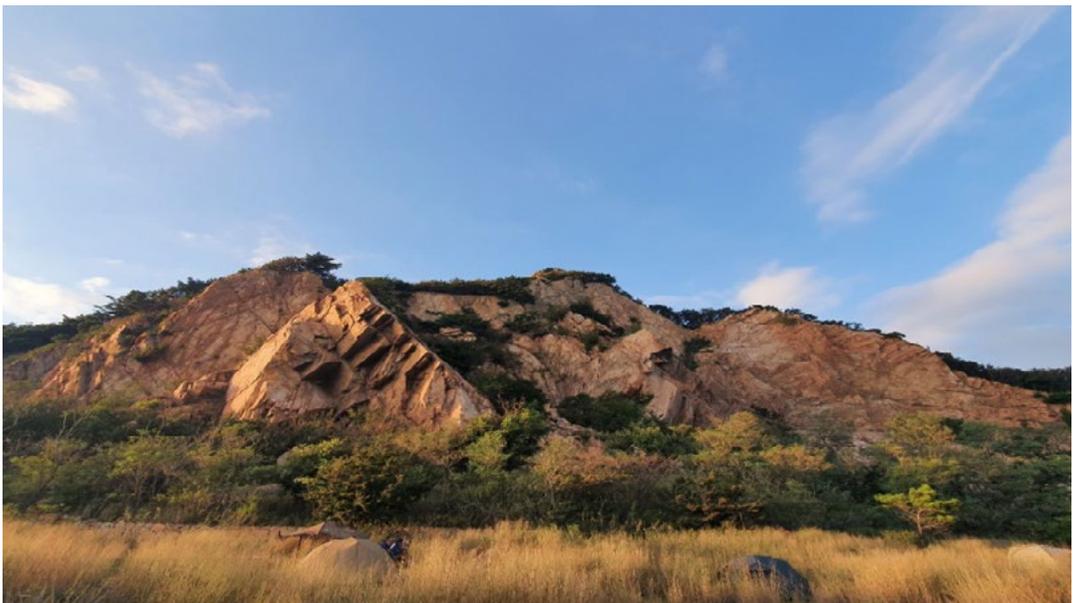
글 영종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장 김용수



세렝게티... 아프리카 그 어딘가에 있는 세렝게티...

1981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세렝게티는 탄자니아의 세렝게티 초원에 있는 국립공원이다. 면적은 약 14,760km<sup>2</sup>. 한국의 충청북도(7,407.31km<sup>2</sup>)의 2배 정도 되는 넓이다. 이름은 마사이족의 언어로 '끝없는 초원'이란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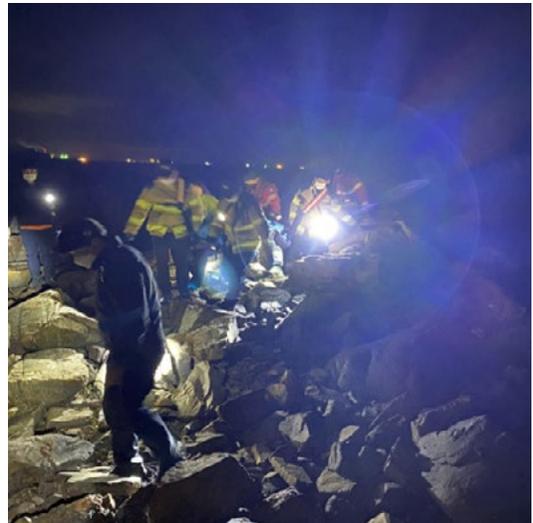
그런데 한국에도 세렝게티가 있다. 영종소방서 관할인 무의도 광명항에서 약 3km, 한 시간 남짓 등산로와 해변을 걷다 보면 요즘 캠핑족 사이에서 핫하다는 그곳이 나온다. 그 모습이 탄자니아의 세렝게티와 흡사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무의도 세렝게티”. 주말이면 텐트가 30여 동이 넘게 퍼지고 캠핑 좀 한다는 사람들은 다 안다는 그야말로 백패킹의 성지로 꼽히는 곳이다.



2022년 3월 22일 평일 낮 11시

세렌게티에서 발을 헛디더 허리를 다치는 바람에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한다는 신고 내용으로 출동하게 되었다. 불현듯 2월 5일 밤 11시, 세렌게티에서의 힘들었던 첫 출동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눈이 녹지 않은 밤 산길은 미끄럽고 좁았으며 위험했다. 이동 속도는 더디기만 했고 해변에 미끄러운 돌을 밟을 때마다 발목이 꺾이기 다반사였기에 생각이 날 수밖에 없었다.



발목을 잃은 뻘한 세렌게티 첫 출동에서의 값진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허리를 다친 환자를 좁고 비탈진 산길과 바위로 둘러싸인 해변길로 데리고 나오기엔 위험요소가 많다고 판단했다. 가장 큰 이유는 들것의 흔들림으로 인해 환자의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었기에 이번 구조 활동이 쉽지만은 않겠다고 직감할 수 있었다.

또한 구조 과정에서 실족으로 인한 동료들의 부상이 걱정되기 시작했고, 3km의 험한 해변 돌길을 돌아가다간 구조활동이 늦어져 신속한 치료를 받지 못할 게 뻘했다. 환자의 2차 부상 방지 및 신속한 병원 후송을 위해서는, 넓은 벌판이 있는 ‘무의도 세렌게티’라면 소방헬기를 요청해 구조활동을 펼쳐도 무리가 없겠다는 판단이 들었

고, 급히 상황실에 소방헬기를 요청하였다.

그렇게 40분 만에 세렌게티에 도착하여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한 채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환자를 발견하였고 가장 먼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였다. 땀을 흘리며 도착한 구조대원 6명과 2명의 구급대원을 보며 연신 자기 때문에 미안하다며 어쩔 줄 몰라 하는 환자분을 보며 더 미안해하실까 봐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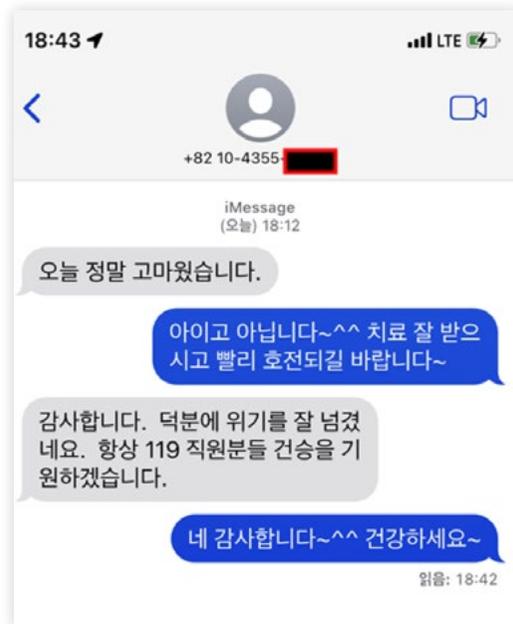
숨을 돌리는 것도 잠깐이었고, 잠시 후에 도착할 헬기의 하강풍이 걱정되기 시작했다. 작은 돌들과 모래, 나무, 해변의 쓰레기 등이 헬기의 하강풍으로 인해 환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10여 분이 지났을까, 저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불꽃신호기를 이용하여 우리의 위치를 소방헬기에 알려주었다. 헬기의 엄청난 소음으로 환자가 불안해할 수 있기에 환자를 안심시킨 뒤, 담요를 이용하여 얼굴과 신체를 덮게 했다.



머리 위를 두 번 선회한 소방헬기는 신속한 환자 후송을 위해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구조하였다. 호이스트 구조란 헬기가 공중에 낮게 떠 정지한 상태에서 지상으로 줄에 묶은 들것을 내려보내 환자를 끌어올리는 방식이다. 헬기를 통한 호이스트 구조로 환자를 무사히 인계하였고 적절한 치료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소방헬기로 이송되었던 환자분께서 문자를 주셨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위기를 잘 넘겼네요. 항상 119직원분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정말로 오랜만에 받아보는 감사의 문자였고 같이 출동 갔던 동료에게도 전해주었다. 우리에게겐 일상적인 출동이지만 따뜻한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 것에 자긍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어느 봄날이었고, 그렇게 영종119구조대와 세렝게티의 인연은 시작되었다.

# ‘영웅사진관’ 영웅들의 자긍심을 찍다

글 계양소방서 예방안전과 안전문화팀 소방사 강건목



## “영웅들에게 좀 더 영웅처럼 멋진 사진을 찍어줄 순 없을까?”

영웅 사진관의 시작은 평소와 다름없던 어느 승진 임용식이 있던 날 이었다. 홍보 담당자였던 나는, 부서에서 사용하는 고급 카메라를 들고 임용식의 시작부터 끝까지 행사 전반의 사진을 찍고 있었다. 임용식을 마친 인원들은 대부분 새로운 계급장이 달린 정복을 입고 공무원증, 조직도 등에 쓰일 증명사진을 찍는다. 그 어느 날보다도 기쁘고 보람되는 날인 승진 임용식 날, 증명사진조차 사무실의 차가운 흰색 벽에 세워두고 촬영해야 하는 현실이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탐탁지 않았다.

고민하다 보니 군 시절 훈련소를 수료하면서 찍던 증명사진이 생각났다. 당시 훈련병 한 명, 한 명 정복을 입고 태극기와 해병대 깃발이 세워져 있는 곳에 앉아 사진을 찍던 게 기억났다. 사진을 받고 ‘내가 정말 군인이 되었구나, 훈련이 너무 힘들지만 멋있다’라고 느꼈던 것 같다. 우리 소방서에도 사진관이 있다면, 힘들고 고된 현장 활동과 업무 속에서 조금이라도 힘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소방서에 사진관을 만들고자 마음을 먹었다.

### **“운영은 어떻게 하지? 장소는? 장비는?”**

팀장님 그리고 팀원들과 함께 사진관을 운영할 아이디어들을 하나하나 꺼내 보기 시작했다. 먼저 사진관을 운영할 장소부터 장비구입 그리고 사후 관리 계획까지 천천히 의견을 제시했고, 팀장님부터 막내인 나까지 보완이 필요한 의견에도 편안하게 대화하며 회의를 진행했다. 팀원들과 의견충돌이 있었다면 애초부터 영웅 사진관이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다. 머리를 맞대고 업무계획서를 꼼꼼하게 만들어 여기저기 관련부서와 협의를 진행한 결과, 서장님의 결재를 받을 수 있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 **“사진... 어떻게 해야 잘 찍지? 사진 보정은?”**

사실 나는 셀카도, 아내 사진도 잘 못 찍어 항상 못매를 맞는 이른바 ‘사진똥손’이었다. 이런 내가 사진관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다니, 앞길이 막막했다. 먼저 사진작가인 친구에게 도움을 구해 카메라에 관한 설명을 듣고 매뉴얼 값(조리개, 셔터스피드, ISO 등)을 조절해가며 사무실 이곳, 저곳을 찍어봤다. 유튜브 사진 강의를 보면서 장소의 밝기에 따라 연습을 하며 찍다 보니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사진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우리 팀 선배님을 얹혀놓고 매뉴얼값을 바꿔가며 이렇게 저렇게 찍어대다 보니 사진을 찍는 기술이 조금씩 향상되는 것 같아 이제 실

전으로 돌입해도 되겠다고 생각했다.

이제는 포토샵이다. 유튜브를 보면서 피부 보정부터 얼굴을 가름하게 깎아주는 작업까지 다양한 기술들을 시도해보니 ‘보정이 없으면 사진이 아니구나...’ 싶었다. 사람들을 미남, 미녀로 만들어주는 보정작업은 너무 재미있어 전문가 수준은 아니지만 금방 늘었던 것 같다.



### “고개를 왼쪽으로 살짝 가우똥해주시고~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구매한 장비들을 3층 소회의실에 설치했다. 제법 사진관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니 처음 해보는 일에 두려움인지 모를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사진관의 이름은 팀장님의 아이디어로 ‘영웅 사진관’이 정식 명칭으로 선정되었다. 계양소방서 3층 소회의실 앞에는 우리 팀 반장님이 디자인한 현판이 걸려있다.

태극기와 소방기를 배경으로 한 사진과, 증명사진에 쓰일 배경 그리고 조명을 설치하고 첫 손님을 기다렸다. 아니나 다를까 첫 번째 손님은 서장님이셨다. 떨리는 마음으로 사진관 기사님들이 대개 하는 것처럼 “턱은 아래로 살짝 당겨주시고, 고개를 왼쪽으로 가우똥~ 좋습니다! 촬영합니



다! 하나둘 셋!” 찰칵! 하는 여러 번의 소리와 함께 금세 촬영이 끝났다. 서장님께서 ‘고맙다, 고생 많았다’ 격려해 주시니 마음이 따뜻해지고 앞으로 찍을 사진에 대한 용기도 생겼다.

서장님을 시작으로 계양소방서 전체직원들을 찍기 시작했다. 촬영한 사진 파일은 포토샵 보정을 거쳐 개인의 메일로 보내주고, 2중 액자를 제작하여 개인별로 나눠주는 이벤트도 진행했다. 모든 직원들이 받은 사진을 보고는 ‘멋있다, 예전에는 사무실 벽은 구질구질했는데... 너무 고맙다’ 라고 말해주어 스스로 보람차고 영웅 사진관을 계획한 것이 너무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 “소방공무원을 영웅처럼 대해주길”

소방공무원은 모두 충분히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도 좋다고 생각한다. 내가 소방서에서 근무하면서 본 모든 소방관은 화재, 구조, 구급,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며 업무에 임하기 때문이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된 지 어느덧 2년이 되어간다. 사진으로나마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공무원인지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 도움을 준 것 같아 기쁘면서 감사하다.

그렇지만 아직도 소방관에게 폭언, 폭행을 일삼는 사람들을 종종 언론에서 보면 참 마음이 아프다. 주황색 옷을 입은 그들은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 딸이자 국가직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한다.

“우리 인천 시민을 지키는 영웅, 소방관!  
초능력은 없지만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아들, 딸입니다.  
박수 쳐주시고 응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봄맞이 산행 '청량산' 나들이

글 공단소방서 소래119안전센터 소방장 윤동원



4월의 첫날. 봄기운을 느끼고 싶어 그동안 미루어 왔던 산행에 나서게 되었다. 아직 쌀쌀한 기운이 여전한 가운데 비까지 추적추적 내려 산행을 못 가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섰는데, 다행히도 아침 퇴근쯤에 비가 멈추어 산행을 나서는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비가 내린 후라 그런지 휴일 오전임에도 텅 빈 등산로를 여유롭게 만끽하며 등산에 임할 수 있었다. 아직 봄이 오기에는 이른 것일까? 봄의 전령사인 꽃망울을 터뜨리기에는 이른 시기인 거 같아 보였다. 천천히 주위 풍경을 만끽하며 등산의 참맛을 즐길 즈음 눈앞에 거대한 계단이 나타났다.

마스크 사이로 가쁜 숨을 내쉬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뎌 계단을 정복하여 산 중턱에 이르렀다. 산 중턱에 이르자 국가지점 번호판과 119구급함이 눈에 띄었다.



국가지점 번호판은 산악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산로에 설치된 번호판에 적힌 번호를 119에 신고하면 이를 통해 요구조자의 정확한 위치가 파악되어 신속한 출동이 가능토록 설치된 번호판이다. 119구급함에는 붕대, 연고, 부목 소독제 등 찰과상과 염좌상 등에 필요한 응급약품과 사고 유형별 응급처치 안내문이 함께 비치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부상을 당한 등산객이나 주변 사람이 119로 신고하면 사고 접수 및 구급함 위치, 필요한 응급처치와 사용방법 등을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다.



조금 더 걷자 이번에는 119안심콜 홍보 현수막과 함께 공단소방서에서 설치한 산불예방 안심 리본이 눈에 띄었다. 이렇게 산행을 즐기는 시민들의 생활 속 곳곳에 시민 안전을 위한 홍보활동이 항상 함께하고 있음이 느껴져서 소방인으로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정상에서의 정복감을 실컷 만끽하고 하산하는 길,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망을 담은 자그마한 돌탑을 만날 수 있었다. 누군가의 소중한 소망이 쌓이고 쌓여 이 돌탑이 이루어진 만큼 돌탑이 훼손되지 않게 주의하며 돌멩이 하나를 집중해 올렸다. 돌탑을 향해 빠른 시일 내로 코로나19의 무사 종식이 이루어지게 해 달라 소망을 빌었다.



등산을 마치고 나니 쌀쌀한 날씨임에도 땀이 나고 속이 출출해져 따듯한 국물이 생각났다. 동춘동에 오면 빠지지 않고 들리는 순댓국집으로 향했다. 맛으로 양으로 유명한 맛집인지라 이른 점심시간임에도 사람들로 북적였다.

맛있는 밥을 홀로 먹기에는 아쉬워 근처에 사는 벗을 불렀다. 열큰 순댓국과 일반 순댓국을 시켜 먹으며 세상 사는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점심시간을 보냈다. 식사가 끝나갈 즈음에 첫째 딸과 둘째 아들에게서 연신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휴일인데 집에 왜 일찍 오지 않느냐며 어서 와서 자기들과 놀아 달라 성화이다. 오늘은 산행의 즐거움을 홀로 만끽했지만, 다음에는 꼭 아이들과 함께 산행에 나서 산행의 즐거움과 더불어 생활 속 소방안전을 공유해 보리라 다짐해 본다.



# 봄철 산악사고 안전수칙



## · 월별 산악사고 현황



⇒ 봄·가을철 구조건수(연평균)가 전체 산악사고의 44%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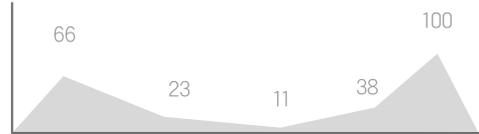
## · 원인별 산악사고 현황

2021년 총 300건



실족·추락 개인질환 저체온·탈진 조난 기타

2020년 총 238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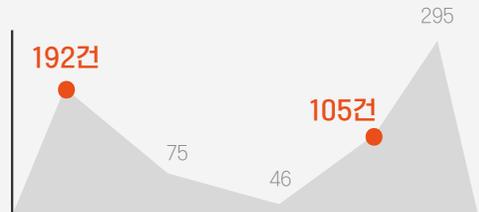
실족·추락 개인질환 저체온·탈진 조난 기타

2019년 총 175건



실족·추락 개인질환 저체온·탈진 조난 기타

총계 713건



실족·추락 개인질환 저체온·탈진 조난 기타

⇒ 봄·가을철 사고원인으로는

**실족·추락이 27%(192건)로 가장 많고, 조난이 15%(105건)순으로 나타남**

### · 봄철 등산 안전수칙

1. 아침 일찍 시작해 해지기 한두 시간 전에 내려오기
2. 2인 이상 출발하고 산행 전 10분 정도 스트레칭하기
3.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자신의 체력에 맞게 속도 유지하기
4. 국가지점번호와 산악위치표지판으로 현재 위치 확인하기
5. 부상이나 조난 시 119에 신고하고 주변에 도움 요청하기

## 3년 전 그날을 기억하며

글 공단소방서 소래119안전센터 소방교 신인규



나는 인천 공단소방서 소래119안전센터의 구급대원이다. 7년 넘게 근무하면서 잦은 출동과 밤샘, 주취자 등으로 몸과 마음은 지쳐있었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피로감은 더 커져만 갔다. 코로나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아 두세 번 옮겨 다니는 일이 빈번했고, 병원 앞 구급차에서 환자와 함께 식사도 거르며 수 시간 대기하는 일이 일상이 되어있었다.

지난 2022년 3월 2일, 커피 한잔을 마시면서 쉬고 있던 비번 날이었다. 땡-땡, 문자 소리가 들렸다. 그냥 광고 문자거나 택배 문자일 것이라 생각했는데 공단소방서 119재난대응과장님께서 보내주신 장문의 문자였다. 구급대원들의 헌신적인 활동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구급대원들을 위해 힘쓰시겠다는 노고 치하 문자였다. 그리고 본부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내가 출동 나갔었던 환자의 보호자가 칭찬 게시글을 올렸다고 하셨다. 나는 후배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문자를 보내주심에 감사함을 느꼈고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칭찬 글을 올리신 분이 누구실까, 어떤 출동이였을까 생각했다. 출동이 너무 많다 보니 감이 잡히지 않았지만 내심 기분이 좋고 뿌듯했다.

글의 내용은 3년 전인 2019년 5월, 내가 도림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할 때 심정지 출동을 나갔던 건이었고 그 환자의 아내분께서 올리신 글이었다. 3년 전이라 잊고 있었지만, 글을 보자마자 그때 그 현장이 바로 떠올랐다. 남편이 쓰러졌다는 신고였고 빠르게 현장에 도착하여 제세동기 부착, 가슴압박, 심장 제세동을 실시하여 남편의 심장과 호흡이 돌아왔던 출동이었다. 당시 옆에서 걱정하는 아내분의 모습에 나 역시 간절했던 기억이 난다. 다행히도 5분이 지나기 전 심장은 정상 리듬으로 돌아왔고, 남편분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눈을 뜨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회복되었다. 아직도 이 모든 게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려졌고, 3년이 지난 지금 칭찬 글을 잊지 않고 올려주심에 감사했다. 더 놀랐던 점은 그때 당시 환자의 아내분께서 임신 중이셨다는 것이다. 만약 심장이 소생되지 않았거나, 예후가 안 좋았다면 세상에 태어날 그 아이는 아버지 없이 살아가게 되었을 것이다.

몸과 마음이 지쳐있었던 나는 이 글 하나로 마음을 다잡게 되고, 처음 임용되었을 때의 마음가짐을 되새기게 되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달려가고 노력하는 것은 소방관이라면 당연한 일이지만, 나의 활동으로 한 가정의 행복을 지켜냈다는 것에 감동을 느꼈다. 게다가 3년 전에 만났던 소방관을 잊지 않고 기억해주신 시민분에게도 감사함을 느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든 시민들이 힘들고 우울할 시기이다. 나 역시 몸과 마음이 지쳐있었지만, 이번 일로 ‘희망’이라는 두 글자를 가슴에 새겼다. 앞으로의 구급 출동에 있어서도 시민이 내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임할 것이며, 몸이 힘들고 피곤할지라도 친절하고 밝은 에너지를 드리려고 노력할 것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각종 현장에서, 구급차에서, 그리고 사무실에서 안전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전국 소방공무원에게 존경을 표하며 힘내시라고 전하고 싶다.



## 2022년 한국119청소년단 단원 모집

**기간** 2022. 3. 7. ~ 4. 29.

**대상** 유치원(어린이집) ~ 대학생

**문의사항** 각 소방서 예방안전과로 문의



| 담당부서                 | 연락처                          | 담당부서                  | 연락처                          |
|----------------------|------------------------------|-----------------------|------------------------------|
| 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br>안전문화팀 | 032-870-5107<br>032-870-5152 | 계양소방서 예방안전과<br>안전문화팀  | 032-650-5668<br>032-650-5657 |
| 남동소방서 예방안전과<br>안전문화팀 | 032-870-5296<br>032-870-5258 | 미추홀소방서 예방안전과<br>안전문화팀 | 032-870-3232<br>032-870-3277 |
| 부평소방서 예방안전과<br>안전문화팀 | 032-723-5350<br>032-723-5330 | 강화소방서 예방안전과<br>예방총괄팀  | 032-930-5843<br>032-930-5859 |
| 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br>안전문화팀 | 032-723-5432<br>032-723-5432 | 영종소방서 예방안전과<br>안전문화팀  | 032-727-6148<br>032-727-6149 |
| 공단소방서 예방안전과<br>안전문화팀 | 032-723-5556<br>032-723-5557 | 송도소방서 예방안전과<br>안전문화팀  | 032-810-6619<br>032-810-6684 |

## 제21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주최/주관** 소방청 / 안전인증원, 소방산업기술원, 소방안전원

**신청기간** 2022. 4. 11. ~ 6. 30. \*시상분야에 따라 신청기간 상이

**시상분야** 우수기업상, 공로상, 콘텐츠공모상

**문의사항** 한국안전인증원 02-6291-0107



발행처 인천소방본부(예방안전과) 발행일 2022년 4월 27일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90 전화 032)870-3075

홈페이지 <https://www.incheon.go.kr/119>

기획편집 정상기, 양경철, 김선태, 유지연, 박형서

디자인 · 기획 · 편집 소나기크리에이티브 주식회사 <https://www.s-creative.co.kr>